

“차가운 물 속 내 자식 어떡해...” 가족들 부둥켜 안고 통곡

눈물의 진도체육관

11일 오전 9시 진도 실내체육관 대형TV화면에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세월호 실종자 수중 수색을 중단하겠다는 대국민 발표문을 읽어내려가자 단원과 허다운(17)양 어머니 박은미(44)씨의 통곡 소리가 체육관을 메우기 시작했다. 이내 다른 가족들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흐느꼈다.

단원고 양승진(58) 교사의 아내 유백영(53)씨는 병상에 누워 영양제를 투여받았지만 통통 부은 눈에는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의료지원반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발표 전 날까지도 수중 수색 유지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던 한 단원고 학생 어머니는 실종자 가족이 모두 모인 기자회견에도 참석하지 않고 평복한 자리를 지켰다.

동생 권재근(51)씨와 조카 혁규(6)군을 기다리는 권오복(59)씨는 “잠수사도 할 만큼 했다”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잠수사의 건강 상태와 주위의 우려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결론이었다”고 말하며 긴 한숨을 내뿜었다.

이날 오후에는 민간 잠수사 30여 명 등 88수중환경·현대보령호 소속 대원이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체육관을 찾았다. 그간 사고 해역 바지선에서 수없이 만났을 가족과 잠수사는 손을 맞잡으며 “그동안 고마웠다” “가족을 꼭 찾길 바란다”는 말을 주고 받았다.

세월호 사고 실종자 가족 대책위 법률 대리인 배의철(37) 변호사는 가족이 정리를 하고 안산에 돌아갈 수 있도록 보름 정도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진도군에 전했다.

진도군민은 가족의 수색 중단 요청 발표에 대해 안타깝지만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이다. 김남중(44) 진도군 범국민대책위 간사는 “가족을 더 배려해주지 못한 것에 미안할 따름”이라며

잠수사 30여명 찾아와 마지막 인사

진도 군민 “더 도와주지 못해 미안”

전남도 “후속 조치·가족지원 최선”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오후 실종자 가족은 사고 해역에 나가 현화를 했다. 가족은 기상 여건이 나쁜 탓에 바지선에 오르지 못하고 경비함정에서 사고 해역을 둘러봤다. 수중 수색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하더라도 한 가족은 말없이 준비해 간 꽃을 바다에 던졌다.

11일 현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는 단원고 2학년 조은화·허다운·남현철·박영인 학생, 양승진·고창석 단원고 교사, 일반인 승객 이영숙·권재근씨와 아들 혁규군 등 9명이다.

한편 세월호 침몰사고 후 수색과 사고 수습을 지원해온 전남도는 이날 정부의 수색 중단 발표와 관련 선제 인양 및 추모공원 조성사업 등 정부의 후속 조치와 실종자 가족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입장발표 자료를 통해 “마지막 한 분까지 모두 인양하지 못한 채 수색을 마쳐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생업과 지역의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면서 생존자 구조와 가족 지원에 내 일처럼 한마음으로 나서서 헌신·봉사에 오신 도민과 진도군민의 안타까운 마음은 더욱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잠수사와 군경·소방 등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그동안 함께 슬픔을 나누고 고통을 분담하면서 수습 지원 활동에 나서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정부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종료를 선언한 11일 오전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수색중단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인양계획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추위·격실 붕괴 잠수수색 한계...가족들 수용

참사 210일만의 수색 종료 배경

세월호 실종자 수중 수색 작업이 참사 발생 210일째 공식 종료됐다.

정부는 마지막 1명까지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 왔지만 실종자 명단에 9명을 남겨둔 채 11일 수중 수색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수색 종료를 공식 발표한 것은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진데다 수색 여건이 수색 인력의 안전에 위협이 될 정도로 악화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색에 진척이 없던 지난달 29일 295번째 희생자인 단원고 황지현양을 찾았지만 다시 기상악화로 수색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민간 구호업체인 88 수중환경 소속 잠수사 등이 바지를 빼고 절수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힌 상황도 수색 종료 발표에 영향을 줬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정부의 수색종료 방침을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잠수사들의 안전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잠수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침몰 이후 7개월여 흐르는 동안 세월호 선체 내 격실 붕괴 위험이 커지고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해상 여건 등이 나빠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과 수차례 논의한 끝에 수색 종료에 대한 실종자 가족들의 양해 내지는 동의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자 가족들도 이날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선체 내 격실 붕괴 현상이 심화돼 잠수사 분들의 안전이 위협해지고 있으며, 동질기를 앞두고 무리하게 수색 작업을 계속하면 또다른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고뇌에 고뇌를 거듭해왔다”며 “가족들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이제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뒤 스스로 수중수색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수색종료 수용 배경을 밝혔다.

수색 여건이 악화되면서 잠수사 등 수색인력의 안전에 부담을 느껴오던 실종자 가족들은 최근 정부와 수색 종료에 관해 상당부분 의견 조율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정부가 수색작업 종료를 선언하는데 따른 부담을 일정부분 줄여준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조류 거센 37m 해저 고난도 기술 필요

기간 1년 이상 걸리고 비용 수천억 소요

세월호 선체 인양 어떻게

세월호 실종자 수중 수색작업이 11일 공식 종료됨에 따라 진도 해역에 가라앉은 세월호 선체 인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중수색 종료를 받아들인 실종자 가족들은 최후의 수색 수단인 선체 인양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현재까지 세월호 선체 인양 여부는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거듭 선체 인양을 통해 마지막 1명까지 수습해달라고 요청해오며 따라 선체 인양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인양 등 선체 처리에 관해서는 해역 여건, 선체 상태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실종자 가족,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체 인양 여부와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것이다.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결정 한다면 실제 인양작업은 내년 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구난업체는 인양을 위한 자료조사, 인양업체 선정, 크레인 동원계획 수립 과정에만 최소 수개월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겨울철로 접어들어 진도 해역 수온이 낮아져 잠수부의 수중 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선체 인양

작업 개시를 늦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인양 작업 자체도 고난도의 기술이 동원되는 만큼 상당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는 국내에서 운항중인 여객선 가운데 최대 급인 6825t급으로 지난 2010년 침몰한 천안함(1200t급)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무겁다. 국내 최대 해상크레인인 삼성중공업의 삼성 5호(8000t급)를 포함해 대형 크레인이 5대가량 동원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심 37m 해저에 가라앉은 선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도 만만치않다 세월호의 길이는 146m로 최소 10개 지점 이상에 체인이 설치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선체를 끌어올려 인양하는 과정에서 해상 크레인들도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 호흡이 맞지 않으면 빠져 들어올린 선체가 다시 침몰할 수도 있고 그 여파로 해상 크레인과 세월호 선체가 붕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류가 거센 수중 시야 확보가 힘든 맹골수도 아래 세월호 선체가 가라앉은 것도 인양 작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고난도 작업이 산재한 까닭에 실제 인양 개시에서 인양 완료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구난업체는 인양 비용이 인양 기법 등에 따라 최소 1000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화순아울렛
밀레·라푸마
OPEN!!

라푸마와 함께하는 벵드대간 대종주

패션은 옷으로 하는 자기소개다
그러므로 라푸마를 입었다면 당신은
가장 스타일리쉬한 자기소개를 한 셈이다
이것이 라푸마 이펙트

Lafuma Effect

COLDZERO

빈틈없이, 온기를 잡았다.
본체선의 통을 두겹의 패딩테이프로 덧대
냉기를 차단하고 온기를 유지시키는 밀레만의 다중 산기술

COLE AIR / COLDZERO 중성 / WARM AIR

Lafuma

MILLET

061-371-7337
010-8288-3579

Lafuma

061-375-8998
010-3618-9615

OPEN AM10:00 / CLOSE PM09:00 화순현대병원건너편